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뉴스홈 | 최신기사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쁨 잠시...폭설에 갇히고 부딪치고 미끄러져

송고시간 I 2021-12-25 09:25













박영서 기자 기자페이지

속초 55.9cm, 주문진 42.7cm...고립·정체·사고 14건에 정전까지



폭설에 묻힌 차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5일 폭설이 내린 강원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의 차들이 밤새 쌓인 눈에 덮여 있다. 2021.12.25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이종건 박영서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 저녁부터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적설량은 속초 55.9cm, 속초 청호 54.4cm, 강릉 주문진 42.7cm, 북 강릉 35.3cm, 강릉 25.5cm, 동해 21.1cm 등이다.

산간 지역에도 미시령 19.4cm, 진부령 19.1cm, 구룡령 6.2cm, 동해 달방댐 4.9cm 등 눈이 쌓였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강원도소방본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차량 고립 10건, 차량 정체 2건, 교통사고 2건, 정전 2건, 지붕 붕괴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고성, 양양, 속초, 강릉에서는 차량 고립 10건이 발생해 24명이 한동안 오도 가지도 못했다.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미시령 야간 제설작업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중북부산지와 동해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4일 고갯길에 많은 눈이 내리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야간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24 momo@yna.co.kr

이날 오전 1~2시께 속초시 대포고개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면 서 통행이 어려워 차량 23대가 견인됐고, 고성군 아야진 7번 국 도 오르막길에서는 전날 밤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군청에서 우회 도로에 제설작업을 했다.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북촌교에서는 15t 제설 차량과 싼타페 차량이 충돌해 50대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동해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 2건이 발생했다.

강릉 주문진에서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일대가 정전돼 약 2시간 만에 복구됐으나 97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으며, 송정동 일대 전신주가 넘어져 일부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

미시령 옛길은 전날부터 통제됐고, 고성군 농어촌도로 202호 2.3km 구간 역시 통제 중이다.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에 폭설 내린 강릉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4일 밤부터 강원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25일 오전 강릉시 교동 일대가 하얀 설국으로 변했다. 2021.12.25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흔들림 없이 손잡 고 한팀"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산간 지역 도로는 중점 제설로 노면이 보일 정도로 눈이 치워졌으나 7번 국도 등 평지는 일부 눈이 쌓인 곳이 있어 관계기관이 제설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발목이 넘게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영동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강원도 등은 제설 장비 220여 대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밤새 눈을 치웠으며, 차량 운행 등 외출 자제를 비롯해 산간 도로 운행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출 것 등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차량 운행 시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눈 내리는 미시령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중북부산지와 북부평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4일 미시령에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2021.12.24 momo@yna.co.kr

conanys@yna.co.kr



유튜브로 보기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23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58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48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38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1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 관련기사

크리스마스에 올겨울 최강 한파...강원영동은 '겨울왕국'

강원 영동 30~50cm 폭설...대부분 지역 한파 특보

눈 내리는 성탄절...전북 곳곳에 눈발 한파

[내일날씨] 매서운 한파 계속...아침 최저 영하 20도

제주 폭설·한파 예보 "산지 최대 40cm 이상 적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5 09:25 송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폭설 #교통사고 #제설 #대설특보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채널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시]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nnews